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3월호

예술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연남



BTS 제이홉 벽화 'K-POP 순례지' 걷고 싶은 광주 '도시 산보' 어때요

새봄이다. 파스한 햇살을 그리워했던 이들이 하나 둘 산책을 다니며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이다. 어느때보다 도시를 활발하며 걷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리본다. 제주의 색깔을 담은 작품 889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은 물 위에 비친 건물 그림자가 또 하나의 미술관으로 불리면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 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가 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은 '걷고 싶은 도시, 광주를 꿈꾼다'로 3월의 문을 연다. 광주시가 '걸을 수 있고, 걷고 싶고, 함께 걷는' 보행도시 만들기 박차를 가한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푸른길'과 시민들이 좋아하는 풍암호수공원 산책길, 순천 도심을 가르는 '도심 산보'는 '느림의 미학'을 만끽한다.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화두를 던지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전문가 제언을 듣는다.

연중 기획 '광주한 바퀴'가 찾아간 곳은 'K-POP 순례지'다. K-POP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 BTS 멤버 제이홉의 고향 광주. 제이홉은 최근 광주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를 방문한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BTS의 인기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충장로 스타의 거리, 금남로 랜존, 양림동 제이홉 벽화 등 K-POP 순례지를 찾아간다.

예향 초대석에서 만날 주인공은 인문학 교수다. 성 교수는 1996년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Cafe Philosophia)를 개설해 시민들의 인문학 지평을 확장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 '철학의 유혹자', '인문학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노(老) 철학자는 '철학이 숨 쉬는 세상'과 '인문(人文)도시 광주'를 꿈꾼다.

'남도 오디세이 美鄕殊路(미로미로)'는 산수유와 고장 구레로 새봄 힐링여행을 나선다. 봄이 시작되면 남도 사람들은 오래 구레를 떠올린다. 섬진강과 지리산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 사이에 피어나는 샛노란 산수유꽃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구레는 TV 예능프로그램 '윤스데이' 방영 이후 쌍산재와 화엄사, 사성암, 섬진강 대숲길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정정 구레로 비대면 새봄 힐링여행을 나선다.

'블릭, 문화현장'은 반가운 전시 현장으로 안내한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의 일상을 꿈꾸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벌써 봄이 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은 흑흑한 시간을 견뎌온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다. 올 봄 윌리엄 터너,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바실리 칸딘스키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거장들의 작품 속으로 문화 나들이를 떠나자.

'한국의 산사를 가다'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이 있는 경남 함천 해인사를 다녀왔다. 한 자 한 자 불심으로 새겨낸 각고의 노력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외에 '박서보예술상' 제정 계기로 본 광주비엔날레와 예술상, 광주에 등지를 튼 외지 문화인들의 눈으로 본 '문화도시 광주' 이야기, 2022 시즌 새 각오로 시작하는 KIA타이거즈 내아수 류지혁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노이에 바헤 '죽은 아이들을 안은 어머니'

사진 속, 붉은 장미꽃 한송이와 함께 찍힌 동판은 무엇일까. 거리 바다에 놓인 동판에 독일어로 적힌 글귀는 '지크프리트 베르너 하우스도르프가 이곳에 살았을 1905년생/1943년 1월 추방됨/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함'이다. 독일 베를린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작은 동판은 나치가 추방하거나 살해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추모석이다.

'작은 역사들을 위한' 추모석은 희생자가 마지막에 살았던 거주지 앞의 보도에 설치되며 희생자의 이름, 태어난 해와 추방된 해 등이 각인돼 있다. 베를린 출신 작가 군터 뎀니히가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이다.

예술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한 잔잔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백종옥(미술생태연구소장) 초대전 '사진으로 만나는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전이 오는 25일까지 문화공원 김넛과(동구 구성로 204번길 13)에서 열린다. 목포 갤러리카페 '만호' 전시에서 이어 두번째 전시다.

홍익대를 졸업하고 베를린예술대학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그는 유학중이던 지난 2002년부터 '도시 전체가 거대한 기념조형물'인 베를린의 조형물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오랜 기간 자료 조사와 사진촬영을 거쳐 지난 2018년 말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 조형물 (반비 간)'을 펴냈다.

백 소장은 베를린의 기념조형물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서 흔히 만나는 높이 솟은 진부한 기념탑과는 달리 미술작품으로서 완성도가 높았고 역사적인 사건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방식도 다양했다. 조형물들은 광고판, 보도블럭, 기차 승강장 등 역사적인 기억을 품은 삶의 장소에 밀착돼 있었고, 이는 일상적인 풍경과 단절되지 않고 제작·설치된 방식을 '도시의 피부에 스며드는 형식'이라 정의했다.

이번 전시에는 베를린의 역사 조형물 11개를 담은 사진 40여점이 나왔다. 2000년대 초와 2017년에 촬영한 사진들이다. 사진 속 조형물은 우리가 접했던 것과 다르다. 높은 제단을 쌓거나 성역화하는 대신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도시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다. 직접적이지도 웅장하지도 않다. 대신 간결하고 압축적이며 상징적이다. 그래서 더 강렬하고, 깊은 인상을 준다.

백종옥 사진으로 만나는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나치 추종자들이 자행한 분서의 현장을 상기시키는 '도서관'.

25일까지 문화공원 김넛과 나치 희생자 추모 조형물 사진 등 도시 풍경에 스민 역사 기억 전시 "오월 광주도 일상과 밀착되길"



나치 희생자들이 살았던 집 앞에 설치된 추모 동판.

유대인을 실은, 죽음의 수용소(행)의 화물차가 출발한 그루네발트역의 117번 선로엔 '1942년 6월13일/유대인 746명/베를린/알려지지 않은 곳'처럼 '열차의 출발' 기록을 담은 186개의 철판이 설치돼 있다.

19세기 초 왕의 경비소로 지어진 노이에 바헤는 독일 재통일 후 '전쟁과 폭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독일의 중앙 추모소'가 됐다. 텅 빈 내부 중앙에는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이들을 안은 어머니' 단 한 작품이 놓여 있고 천장 중앙의 원형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시시각각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나치를 추종하는 대학생들은 1933년 5월 10일 밤 베벨 광장에서 2만 명이 넘는 책들을 불태웠다. 현재 베벨 광장 지상에는 사각형 투명 유리창만이 있고, 그곳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지하 공간엔 텅 빈 책장이 존재한다. 미하 올만이 1995년 완성한 기념조형물 '도서관'은 '비워둠'을 택해 더 많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또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작전명 발키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히틀러 암살을 주도했던 이들의 흔적을 만나는 '독일저항기념관'의 조형물도 인상적이다.

처음 공공미술과 역사를 주제로 한 책을 펴내겠다고 했을 때 주변 미술인들도 출판사도 판매는 어려울 거라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블로그 등에 그의 책을 들고 베를린을 여행하는 사진들이 올라오는 등 호응이 이어졌고 세종도서관에도 선정됐으며 전시 바로 전에 3쇄를 찍었다.

"공공미술, 기념조형물이라는 딱딱한 데 컨셉을 맞추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굳어져 있는데 반해 독자들은 유연한 시각으로 기념물들을 대하더군요.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한다. 이곳에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작품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요. 작품을 보며 자연스레 감동받고 궁금해하면서, 역사 속으로 한 발 들어서는 거죠."

백 소장은 국내 기념 공간 조성이나 조형물 제작에 건축학과 역사학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데 반해 '현대미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예술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제가 베를린에서 조형물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작품을 본 순간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기속사와 가까이 참 많이 다녔던 17번 선로가 대표적이지요. 감동이 있으니 알아보기 시작했고, 공부도 이어졌죠. 미술의 감성으로 바라보고, 해석될 때 더 여운이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념 조형물은 일상에서 분리돼 특별한 공간, 성역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형상화되고, 재해석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진행형이 아닌, 역사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지요."

백 소장은 '오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의 추모 공간과 조형물들도 "의무감처럼 묵념하러 가는 곳이 아닌, 베를린 투어처럼 좋은 작품들을 보러가는 여행이 되고, 그 감동을 이어가며 역사를 알아가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소모임을 대상으로 전시 기간 중 관련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10-3544-33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실내악 시리즈' 공연장서 만나요

2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실내악 시리즈 I, Andante Cantabile'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한다.

광주시향 실내악 시리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광주문화예술회관 온라인 공연 '안방예술극장'으로 시작했다. 2020년 14회, 지난해 10회를 광주시향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공연을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실내악 시리즈에는 악장 이중만, 제2바이올린 이수연, 비올라 엄광용, 첼로 이후성, 클라리넷 주민혁까지 다섯 명의 광주시향 단원들이 참여한다.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현악4중주 1번'으로 시작한다.

다. 특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는 슬라브 특유의 애잔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차이콥스키의 명성을 드높이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후반부에는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를 연주한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이후 그 형식의 절정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쓸쓸한 분위기와 삶에 대한 회의가 엿보이는 등 비극적인 악상이 많이 나타난다. 네 대의 현악기 사이에서 홀로 노래하는 클라리넷은 브람스 특유의 우수를 담아 서정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왼쪽부터 첼로 이후성, 비올라 엄광용, 클라리넷 주민혁, 바이올린 이수연·이중만 단원.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현역 최고령' 106세 김병기 화백 별세

'최고령 현역 화가'로 불리던 김병기(사진)화백이 지난 1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6세.

1916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병기는 도쿄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에서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등과 수학했다. 이후 귀국해 북한에서 북조선문화예술총연맹 산하 미술동맹 서기장을 지냈으나 1948년 월남했고, 한국문화연구소 선전국장, 종군문화재단 부단체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을 맡았다.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한 이후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 1980년대 중반 국내 회단에 복귀했고 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영감을 얻은 '인왕제색', '분단된

조국을 떠올리며 그린 '산하제' 연작, '분단 풍경' 등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던 그는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하여 열린 '김병기:각각의 분할' 전 이후 영구 귀국해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지난해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에도 신작을 발표했다. 고인은 2017년 101세에 대한민국 예술원 최고령 회원으로 선출됐고 지난해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김병기 화백



'분단 풍경'